

보도시점 (온라인) 2026. 7. 1.(수) 12:00
(지 면) 2026. 7. 2.(목) 조간

수해·화재로 젖은 기록물 당황하지 말고 한 장으로 구하세요

- 국가기록원, '종이 기록물 응급조치 한 장 요약서' 제작해 7월 2일부터 공개
- 안전 수칙부터 점검표까지 한눈에 확인, 사진과 도표로 현장 실용성 극대화
- 관할 기관 여건에 맞춰 '찾아가는 현장 맞춤형 교육'도 함께 실시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국가기록원은 수해나 화재 등으로 침수되거나 곰팡이 피해를 입은 기록물이 그대로 방치되어 영구적으로 손상되지 않도록 신속한 초동 조치에 필요한 '응급복구 한 장 요약서'를 제작하여 배포한다고 밝혔다.

국가기록원은 최근 기후 변화로 예측하기 어려운 재난이 증가하면서 국가적으로 소중한 기록물이 훼손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는 점에 주목했다. 이에 따라, 이번에 제작한 「곰팡이 피해 종이 기록물 응급조치 요약서(이하 요약서)」를 통해 현장에서 누구나 쉽고 빠르게 대응할 수 있도록 실용적인 구제 방법을 제시했다.

>> 안전 수칙부터 처리 방법, 현장 필요 물품과 점검표까지 한눈에 확인

이번에 배포되는 요약서는 재난 피해 유형에 맞춰 즉시 대응이 가능한 핵심 내용으로 알차게 구성됐다. 특히 디지털 환경에 익숙한 실무자뿐만 아니라 국민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시각적으로 도식화하고 관련 사진 등을 풍성하게 활용해 한눈에 들어오도록 제작한 것이 특징이다.

구체적인 내용으로는 ▲곰팡이 피해 기록물을 다루기 위한 안전 수칙과 곰팡이의 특성, ▲곰팡이를 먼지 등으로 잘못 오인하는 사례, ▲오염된 기록물을 분리하는 방법과 작업 환경 관리, ▲곰팡이 제거 방법 등이 담겨있

다. 특히 곰팡이 피해 기록물을 취급할 때 현장에서 즉시 조달해야 하는 필수 물품 목록과 점검표(체크리스트)를 추가해 실용성을 높였다.

국가기록원은 누구나 요약서를 활용할 수 있도록 7월 2일(목)부터 국가 기록원 누리집(<http://www.archives.go.kr>)에 공개한다.

>> 공공기관 자체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한 ‘찾아가는 현장 맞춤형 교육’ 최초 실시

한편, 국가기록원은 관할 기록관과 공공기관의 자체적인 재난 피해 대응 역량을 키우기 위해 올해부터 ‘찾아가는 현장 맞춤형 교육’을 실시한다.

올해는 7월 초 울주군청을 시작으로 8월에는 고양교육지원청, 9월에는 경제 분야 기록관리 협의회 등 3개 기관을 대상으로 맞춤형 교육을 운영한다. 교육 과정은 ‘재난 피해 종이 기록물 응급 복구 대응 절차에 관한 기초 교육’, ‘서고 등 현장에서 적용할 수 있는 기록물 상태 개선 방법 실습 교육’ 등 기관 요청 사항과 기관 여건을 반영해 맞춤형으로 진행할 계획이다. 맞춤형 교육은 관할 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한 수요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매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이와 함께 국가기록원은 2022년 태풍 피해를 입은 포항 지역의 ‘훼손 기록물 응급 복구 지원’을 비롯해 국가적인 재난 피해 기록물*에 대하여 전문 기술과 축적된 경험을 바탕으로 응급 복구 지원책을 펼쳐오고 있다.

* 2010년 천안함 인양 기록물, 2011년 이화장(이승만 초대 대통령 사저) 수해 기록물, 2017년 세월호 인양 기록물, 2022년 포항시 침수 기록물 등

또한, 자체적으로 ‘기록물 응급 복구 키트’를 개발해 상습 침수 피해 우려가 있는 37개 시군구에 배포를 완료했으며, 매년 각 기관의 기록 관리 담당자를 대상으로 맞춤형 응급 복구 실습 교육을 꾸준히 진행해 왔다.



재난 피해 종이기록물 응급복구 실습 (공공·민간 기록관리 담당자 대상)



응급복구 키트·매뉴얼

이용철 국가기록원 원장은 “기록물은 국가의 정체성을 지켜내고 국민의 알권리를 온전히 보장하기 위한 국가 자산”이라고 강조하며, “앞으로도 재난 피해 현장에서 당황하지 않고 즉시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콘텐츠를 개발하여 보급하고, 이와 연계한 교육 등을 확대해 기록 관리 최일선 현장의 고민을 해소하는 데 역량을 집중하겠다”라고 밝혔다.

담당 부서	국가기록원 복원관리과	책임자	과 장	고연석 (031-750-2209)
		담당자	연구관	나미선 (031-750-2032)



재난 피해 응급복구 한 장 요약서



01 곰팡이 피해 종이기록물 응급조치 편



⚠ 곰팡이 제거 전, 준비 없는 취급은 "작업자의 건강에 심각한 피해"를 입힐수 있습니다.

- 목적 및 범위**
- 곰팡이가 발생한 종이기록물 취급 시, 추가 오염 확산 방지와 작업자의 안전 확보
 - 소규모(100권 이하) 피해 상황에서 현장 적용 방법 제시
 - ※ 대규모 또는 피해가 심각한 경우, 전문가 의견이 필요합니다.

1. 작업자 안전 수칙

🚫 곰팡이 포자 흡입 및 피부 접촉 방지

👉 곰팡이는 호흡기, 피부, 알레르기 반응 등 유발 가능
→ 개인 보호 장비(PPE) 착용 필수

☑ 개인 보호구 착용 기준

- 방진마스크 : KF94 이상 or 방진마스크
- 보호안경, 장갑 : 니트릴 or 라텍스
- 보호복 : 긴 소매 작업복 or 일회용 방진복
- 앞치마, 모자, 덧신 사용



🚫 눈, 피부 자극시 즉시 중단, 곰팡이 면적이 넓은 경우 전문가와 상담

2. 작업 공간 확보 및 안전관리

🏠 공기 중 곰팡이 포자 농도 감소 및 오염 확산 방지

- 일반 작업공간과 분리하여 2차 피해 예방을 위한 출입 통제 표시 부착
- 작업 환경 관리 : 온도 20±2°C, 습도 50±5%
- 창문 개방(맞통풍), 밀폐공간에서 작업 금지
- 선풍기, 환풍기 등 활용하여 공기 순환
- 작업공간에서 음식물 섭취, 음용 절대 금지

온·습도 조절

취식 금지

환기 필수

곰팡이 특성

구분	활성곰팡이	비활성 곰팡이
상태	성장·번식중	성장 정지 상태
형태	솜털·균사 확산	가루·분말 형태
냄새	곰팡이 냄새 강함	냄새가 약하거나 없음
위험성	빠른 확산·재오염 가능	습도 상승시 재활성 가능



3. 곰팡이 오염 제거

👉 "부드러운 붓 + HEPA 필터 장착 청소기"로 약하게 흡입

1단계

도구·재료 준비

- HEPA* 필터 청소기
- 면봉, 붓, 키친타올,
- 70%(v/v) 에탄올 수용액 등



* High Efficiency Particulate Air

2단계

표면 오염 제거

- 청소기 흡입구에 덮개 (플라스틱테이프, 부직포 등)를 씌워 직접 접촉 방지
- HEPA 청소기와 붓을 이용한 표면 오염 제거
- 타월은 깨끗한 쪽으로 교체하며 사용
- 에탄올(70%) 소독은 필요시 제한적 적용

NOTICE: 곰팡이 포자가 공기 중에 확산되지 않도록 천천히 작업

★ 잉크 번짐·변색 우려
"사전 테스트" 필수



3단계

작업 후 정리

- 사용한 장갑, 마스크 등 밀봉 폐기
- 재사용 장비는 세척, 소독
- 작업복은 즉시 세탁 또는 폐기



4. 재발 방지를 위한 환경 관리

👉 곰팡이는 제거보다 환경관리가 핵심

- 온·습도 관리 : 온도 20±2°C, 습도 50±5%
- 정기점검 : 곰팡이 재발 여부 주기적 모니터링
- 보존 환경 개선 : 통풍, 환기
- 보존관리 : 기록물 보관 시 보존용 충성 재료 사용



☑ 체크 리스트

- 작업자 안전 관리 - 개인 보호구 착용 완료
- 작업 환경 - 작업 공간 환기 및 오염구역 분리
- 장비·물품 - HEPA 청소기·붓 등 필요 물품 사전 준비
- 공간 정리·위생 관리 - 작업대 도구 청소, 폐기물 처리 및 손 씻기
- 보존 환경 관리 - 온·습도 안정 여부 확인 및 곰팡이 재발 여부 모니터링

▶ LIVE



곰팡이 피해
종이기록물 응급방법

